

‘발산과 수렴’의 언어, 문화적 발현 - ‘평서문과 의문문’을 중심으로 -

오 정 민

(추계예술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국문초록

프랑스어와 한국어 안에 자리한 사유방향의 대립성 특히 발산과 수렴은 태극 그림에서 그 엄연한 법칙이 짙어지며 그러한 언어, 문화적 발현은 이원적 대립에서 나아가 보다 세분화된 사상(四象)의 이효 궤를 통하여 분석될 수 있다. 이효 궤에서 상부 효와 하부 효는 각각 ‘자아개념’의 자리,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의 자리로서 그 자리가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 의문문/평서문, 숫자 세는 방법, 날짜나 주소, 성명 표기의 순서, 동양화의 화법과 원근법 등이 대립적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언어분석에서 도출되는 사상의 소음(少陰), 소양(少陽)의 궤에서 상부 효와 하부 효가 음인지 양인지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에서 서로 문화적 가치판단이 대립적으로 뒤바뀌는 연원을 밝혀낸다. 그리하여 의문문/평서문 분석에서 시작된 사상적 뒤바뀔의 사유패턴은 결국 문화적 발산, 수렴과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이른다. 그것은 한국과 프랑스의 일상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화적 대척 현상을 이원성이라는 단순한 음양 대립보다는 소양, 소음의 이효 궤로 풀어내는 것이기도 하다. 이로써 자아개념(상부 효)이나 개인관계에 대한 가치관(하부 효)과 그로부터 야기되는 언어, 문화현상에 있어서 한국과 프랑스가 사상적으로 서로 뒤바뀌어 있음을 구체적 예를 통하여 밝혀내었다.

주제어 : 발산과 수렴, 사상, 불어와 한국어, 언어와 문화, 의문문과 평서문, 톨레랑스

1. 머리말

이성환·김기현(2006:25)도 밝히고 있듯 주역의 괘는 부호로써 만물의 작용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는 우주의 만물 중 지구상 언어현상이 대변하고 있는 음양 법칙을 발산과 수렴의 원리로 풀어보고자 한다. 서양어와 동양어 특히 불어와 한국어에서 보이는 일정 표현(평서문과 의문문)의 대립성에서 주역의 음양대립의 원리를 짚어내고 나아가 사상(四象)으로까지 분석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제가 문화현상 안에도 그대로 잠재되어 있음을 보이는 것이다.

복희씨가 8괘를 그린 것은 문자가 없어서였기도 했겠지만 의미를 일정 분야에 한정시키는 언어를 써서 뜻을 고정시키지 않기 위함의 뜻도 있었을 것이다. 그 시대에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가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었는지의 역사적 객관성은 차치하고, 모든 시대와 공간에 걸쳐 두루 적용되는 원리를 표현하기에 꽤만큼 적당한 수단도 없음이 우리의 분석을 통해서도 드러날 것이다. 우리를 둘러싼 만물의 작동 원리를 괘상 안에서 찾아내는 일은 현대인인 우리의 몫이기 때문이다.

언어표현방식의 차이는 곧 문화차이를 대변한다. 문화차이는 지역이나 국가의 규범이나 정치, 사회 제도, 풍습, 도시경관 등에서 어김없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유방식이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는 매개체인 언어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이로써 대조언어학의 새로운 방법론을 동양철학의 견지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결과¹⁾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결과일 뿐 본질적인 면은 일상의 경험적 사물에도 어김없이 작용하는 우주적 진리를 직관하여 그러한 직관이 논리와 위배되는 일이 없음을 학문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어쨌든 “주역이 정치와 윤리에 적용된 것을 성리학, 점치는 데 적용된 것을 추

1) 불어를 비롯한 서양어와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동양어의 표현양상의 차이를 음양과 사상으로 풀어낸 선행연구는 전무함을 밝힌다.

명학, 지리 환경에 적용된 것을 풍수지리학, 질병 치료에 적용된 것을 한의학, 음악에 적용된 것을 율려”(이성환·김기현 2006:2)라고 하는데 음양이론이 이렇듯 언어현상에 적용된 우리의 연구 역시 새로운 학문 분야로 명명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II. 음양(陰陽)과 사상(四象)에 대한 개요

1. 음양(陰陽)에 대하여

“태극이 양의(兩儀), 곧 음과 양을 낳고, 태극이 움직이면 양이 되고 고요해지면 음이 된다.”²⁾라는 표현에서 보듯 음과 양은 우주의 만물에 작용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지구상의 서양과 동양은 각각 양과 음에 해당된다고 한다.³⁾ 따라서 이성환·김기현(2006:135)은 서양인을 양인, 동양인을 음인으로 짝여내고 있다. 그것은 필자도 동의하는 바인데 우리의 분석에서는 그러한 대전제에서 출발하여 구체적으로 각 언어의 일정 표현이 어떤 의미에서 각각 양과 음의 성격을 띤다고 말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불어와 한국어의 일정 표현들을 분석한 결과 과연 불어의 양의 언어로서의 성질, 한국어의 음의 언어로서의 특질이 무엇인지를 구체적 언어학의 내용으로 정의할 것이다. 거기서 본질적인 부분은 바로 그러한 확인에 다다른 분석과정의 내용 자체이다. 그것은 어떤 사 람을 소양인이라거나 태양인이라고 말할 때 그러한 결론 자체보다는 어

2) 『주역(周易)』

3) “동양은 해가 뜨는 곳인 데 비해 서양은 햇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동양의 경우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라면, 서양의 경우는 나무가 가지를 뺏어나가는 것이죠.”라는 김석진(1999:48)의 설명에서도 볼 수 있듯 동양은 하강의 특성이 서양은 상승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와 거주인들의 사유방식을 결정한다. 하강과 상승의 음, 양 특성은 <표 1> 안에도 명시되어 있다.

편 연유에서, 어떠한 성질과 특질이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는지의 내용이 생명인 것과 같다.

“음양이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근본이며, 변화의 모체이며, 생살(生殺)의 본시(本始)며, 신명(神明)의 창고다.”⁴⁾라는 언명이 나타내듯, 우주 만물의 음양 대립적 특질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의 내용은 이후 전개될 우리의 언어분석에 토대가 될 직관과 통찰의 근간을 이루어줄 것이므로 숙지할수록 도움이 된다.

<표 1>⁵⁾

	음	양
일반적 속성	비활동적이다 어둡다 차다 무겁다 두껍다 탁하다 소극적이다 농후하다 보이지 않는다 단단하다	활동적이다 밝다 뜨겁다 가볍다 얇다 맑다 적극적이다 희박하다 보인다 유연하다
작용	수렴 휴식 파괴 흡입 억압 퇴화 완성 불연속 유지	발산 행동 창조 폭발 흥분 진화 개시 연속 변화

4) 『황제내경(黃帝內經)』,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편

5) 이 표의 내용은 이성환·김기현(2006:91-92)을 참조하였다.

	음	양
작용	후퇴 반응 쇠퇴 제지	전진 명령 번영 촉진
방향	하강 내 (안) 구심력 전 내부 북 서	상승 외 (밖) 원심력 후 외부 남 동
우주의 구성물	물질	에너지
양자물리학	입자성	파동성
우주	블랙홀	화이트홀(빅뱅)
인간	육체	정신
영(靈)	백(魄)	혼(魂)
생물	식물	동물
자동차	제어장치	가속장치
주식시장	약세	활황
컴퓨터	기억	계산작용

2. 사상에 대하여

음과 양 각각을 다시 음과 양으로 나누면 음은 태음과 소음으로 세분화되고 양은 태양과 소양으로 세분화된다. 음 중의 음은 태음, 음 중의 양은 소음, 양중의 양은 태양, 양 중의 음은 소양인 것이다. 이원적 구분이었던 음양의 대립에 비해 4개로 나뉜 사상은 음양으로 나눈 것보다 그 성질이 더 명확해진다. 그리하여 우주의 만물은 또다시 다음과 같이 사상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⁶⁾

	太陽	少陽	太陰	少陰
계절	춘	하	추	동
작용	생	성장	수렴	저장
방위	동	남	서	북
위치	좌	상	우	하
구성원소	風	火	地	水
컴퓨터	입력장치 (키보드)	계산장치 (CPU)	출력장치 (프린터)	기억장치 (메모리)
물리	소리	빛	냄새	맛
발전원	풍력	태양력	석유	수력
남녀	tomboy	남자	gay	여자
식물계	풀	관목	키큰나무	이끼 버섯
스포츠	야구	농구	축구	골프
감정	怒	喜	哀	樂
정치	수정공산주의	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공산주의
화학	약산성	산성	약알칼리성	알칼리성
증권	활황	천장	불황	바닥
정신상태	낙관주의	광증	염세주의	우울증

사상은 이제마가 의학에 적용시킨 ‘사상 의학’으로도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계절이나 방위, 절기 등의 전통적 구분뿐만 아니라 위의 표에서와 같이 정치, 스포츠, 컴퓨터, 물리, 화학, 증권, 정신상태 등 물질과 형이상에 두루 작용하고 있는 원리인 것이다. 이러한 음양과 사상의 법칙과 특성을 언어와 문화에서 짚어내는 작업이 바로 우리의 연구이다.

그러면 이제 음양과 사상의 원리가 어떻게 언어와 문화의 요소 안에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6) 이 표의 내용은 이성환·김기현(2006:225)를 참조하였다.

Ⅲ. '발산과 수렴'이란 음양(陰陽)의 이원적 대립과 그 문화적 발현

1. 발산과 수렴의 음양(陰陽) 대립적 문화

<표 1>에 명시된 음양의 여러 대립된 성질 중 '작용'란 첫 행의 '수렴'(음)과 '발산'(양)이 우리의 언어, 문화 분석의 주된 축이 된다. 이에 이성환·김기현(2006:135)이 지적하는 미는 힘(양)과 당기는 힘(음)의 대립에서 일단 다음과 같은 문화적 예를 볼 수 있다.

“서양 사람들은 톱질을 할 때 미는 힘을 더 쓴다. 톱 자체가 밀 때 나무가 잘리도록 되어 있다. 동양 사람들은 톱질을 할 때 잡아당기는 힘을 더 쓴다. 톱 자체가 잡아당길 때 나무가 잘라지도록 되어 있다. 서양 사람들은 비질을 할 때도 몸 밖으로 쓸어낸다. 동양 사람들은 비질을 할 때도 몸 쪽을 향해서 쓴다. 서양 사람들은 양인이라 추력(推力-미는 힘)이 발달되어 있고 동양 사람들은 음인이라 인력(引力-끄는 힘)이 발달되어 있다.”

밖으로 미는 힘은 안으로 잡아당기는 힘과 대립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발산과 수렴의 성질은 <표 1>의 '안'(음)과 '밖'(양)의 구분과도 통한다. 발산과 수렴은 또한 여름의 성장(즉 발산, 양)과 겨울의 저장(즉 수렴, 음)과도 같은 원리이다.

발산/수렴과 관계된 음양의 특성은 톱질과 비질 뿐만 아니라 숫자를 세는 방식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예컨대 음인인 한국인은 손가락을 엄지부터 안으로 접어들이면서 세는데(나, 즉 안쪽으로의 수렴) 양인인 프랑스 사람들은 반대로 손가락을 밖으로 펴나가면서(너, 즉 밖 쪽으로의 발산) 헤아린다.

또한 편지봉투에 주소를 쓰는 방식에서도 프랑스 문화의 발산의 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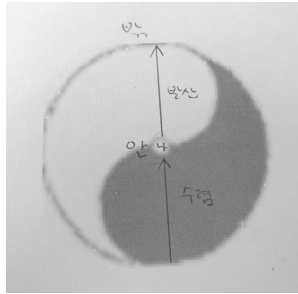
성과 한국 문화의 수렴의 특성이 드러난다. 프랑스에서는 수신인이나 발신인의 이름을 맨 먼저 쓰고 그 다음 주체가 거주하는 번지 수, 거리 명, 도시 명, 국가명의 순으로 나아간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밖으로 표출하는 발산의 방향인 것이다. 반대로 한국에서는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이후에 번지수가 나오고 발신인이나 수신인의 이름이 맨 뒤에 나온다. 이것은 가장 큰 외부세계에서 시작하여 내 안의 방향으로 수렴하는 사유패턴이다.

사람 이름이 양의 언어에서는 맨 앞에 나오고 음의 언어에서는 맨 뒤에 나온다는 의미에서 <표 1>에서 보이는 ‘전진’(양) ‘후퇴’(음)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 즉 발산과 수렴의 양음 대비는 밖과 안, 추력과 인력, 전진과 후퇴와 상통하는 분류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표 1>에서 보이는 양과 음의 특질들은 일반적 속성이건 작용이건 방향이건 다 일관된 특징으로 분류되어 있다.

발산과 수렴의 양음 대비는 서양화의 원근법과 동양화에서도 관찰될 수 있다. 나를 중심으로 하여 바깥으로 향하는 시각을 반영한 원근법에 비해 동양화에서는 전체적인 풍경이 우선적으로 있고 그 안에 사람들이 부분적으로 등장함 위치한다. 원근법은 ‘내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세계를 보는 발산의 방향이고 동양화에서는 주위 상황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는 수렴의 자세가 화법으로도 나타난 것이다.

주소 표기방식이나 화법의 대립성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는 개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이 뒤따른다. 반면 동양에서는 집단적 성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개인의 이름이 위치한다.

이상 양의 세계에서의 발산과 음의 세계에서의 수렴을 도식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도식 1]

위의 그림에서 밝은 부분은 양의 세계이고 어두운 부분은 음의 세계이다. 양과 음의 세계를 관통하는 직선은 태극에 해당한다. 태극 원의 테두리를 자아의 안과 밖이 나누는 경계로 볼 때 같은 선이 양의 세계에서는 바깥쪽으로 음의 세계에서는 원의 중심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리하여 발산과 수렴이라는 부분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같은 태극이 양의로 나누어 음양이란 현상이 생긴다⁷⁾는 주역의 표현이 태극 그림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서 수많은 음양의 특성 중에서도 우리의 논의의 축인 '발산과 수렴'이 도식화될 수 있는 것이다.

날짜를 쓰는 순서가 반대인 것 역시 발산과 수렴의 음양 대비 현상이다. 불어로는 예컨대 'le 15 mars 2021'(혹은 '15/3/2021': 이것은 극서지역인 유럽 및 호주의 표기방식에 해당한다)로 표기되는 것이 한국어로는 '2021년 3월 15일'로, 순서가 뒤바뀐다. 그것은 나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것을 먼저 표기해 나가는, 원근법과 같은 기제의 사유패턴이다. [도식 1]로 보면 하나의 태극 선이 양의 영역(유럽⁸⁾ 즉 극서 지역의 사유패턴)을 지날 때는 밝게 표시되고 음의 영역(한국 등 아시아 지역의

7) 본론의 첫 문장 참조

8) 그러나 같은 서양어라도 영어로는 'Mar. 15th, 2021'(미국, 캐나다)로 연도가 맨 뒤에 오기는 해도 달이 날보다는 선행한다. 이것은 같은 양의 세계 안에서 그것 이 다시 음과 양으로 더욱 세분화되는 범주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본 연구의 주제를 벗어난 논의이다.

사유패턴)을 지날 때는 어둡게 대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시각화된다. 이 때 원근법 등 자아를 중심으로 하는 발산의 사유방식은 반지름 화살표 방향이 안에서 밖으로 향하고 동양화 화법 등 밖의 외부적 상황을 우선시하는 수렴의 사유방식은 반지름 화살표 방향이 밖에서 안으로 향하는 것으로 표시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디지털적으로 그려진 태극그림에 일정 선이나 개념을 부여하여 읽는 방법을 풀이해 볼 수 있다.

다음 장의 사상으로 더욱 자세히 말해보자면 이 현상은 발화자(sujet parlant)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발화 상황)와 맺는 관계가 각기 소양이나 소음이나에 따라 하부 효가 서양에서는 음, 동양에서는 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즉 소음의 궤에서 외부세계를 우선시하는 음의 하부 효로서 한국의 날짜, 주소, 성명 표기 순서나 동양화 화법으로 발현되는 연원이 밝혀지고(이 때 상부 효는 음으로, 자아개념은 거의 무화되고 있다) 반대로 소양의 궤에서 자아 개념을 우선시하는 양의 상부 효로서 프랑스의 날짜, 주소, 성명 표기 순서나 원근법으로 발현되는 연원이 밝혀지는 것(이 때 하부 효는 음으로서 외부세계의 존재가 무화되고 있다)이다. 음양의 이원적 대립에서 보다 세분화된 사상의 기제에 대해서는 Ⅲ. 2.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발산과 수렴의 사상 대립적 문화

발산과 수렴이 생리 기관으로도 발현된 예로 이성환·김기현(2006:268)은 또한 눈빛을 들고 있다. 그리하여 “소양인의 관심은 陽的인 부위인 밖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빛을 내면서 쏘아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실지로 서양인의 눈빛이 강한 이유가 이러한 발산의 특징인 것으로 보인다.

“소음인은 陰의이고 가장 깊은 신장과 생식기 부분의 활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눈의 활동이 그 부분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다. [...] 소양인의 눈동자가 빛이 나오는 것 같다면 소음인의 눈동자는 빛을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다. [...] 태음인은 에너지의 수렴작용이 활발한 사람들로써 눈빛이 흐리다. 봄의 작용이 강해서 에너지가 솟구칠 때 용기가 나오고 에너지가 수렴될 때는 겁을 먹는다. 태음인은 항상 겁먹은 눈을 하고 있다. [...] 태음인은 에너지가 수렴되지만 하고 발산되지 않아서 병이 된다. [...] 태음인은 에너지가 수렴되어서 땀이 잘 안 나는데 땀을 흘린다는 것은 에너지가 발산되었다는 것이며 [...] 소음인도 땀이 잘 안 나는데 아주 약해지면 식은땀이 아주 많이 난다.” (이성환 · 김기현 2006:267-268, 273)

“태양인은 에너지를 방출시키고자 하는 간의 기능이 왕성하여 계획성이 없고 절도가 없다. 그것이 방종하고자 하는 마음인데 방종하면 할수록 에너지의 방출이 왕성해지고 폐의 수렴기능은 약해진다. 항상 방종을 경계하면 간의 에너지 방출이 느려지며 폐의 수렴작용이 좋아지고 생리기능의 음양이 조화를 이룬다. 소양인은 자기를 과시하고 사치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경계하여야 한다. 에너지가 몸 밖으로 퍼져나갈 때 나오는 마음이 과시하고 사치하는 마음이다. [...] 태음인은 탐욕을 버려야 한다. 탐욕은 에너지가 수렴되어 물질로 쌓일 때 나타나는 심리상태이다. [...] 소음인은 작은 것에 만족해 버리는 안일함을 경계해야 한다. 에너지 소모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만족함이 생기고 안일함이 생긴다.” (이성환 · 김기현 2006:274-275)

위의 대목에서도 양인(태양인, 소양인)의 발산과 음인(태음인, 소음인)의 수렴의 성질을 알 수 있다. 위의 인용문을 상세히 든 이유는 다양한 생리기능 자체 보다는 그러한 기능의 발산과 수렴의 양태를 감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한 발산과 수렴의 성향이 이후 우리의 언어분석에서도 본질적인 통찰로 기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태양과 소양의 기질은 서양인에 많고 태음과 소음의 기질은 동양인에 많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지면상 여의치 않다.

다만 이후 우리의 언어분석에서 불어 표현의 소양적 특성과 한국어 표현의 소음적 특성을 다룰 때의 기본 개념 정도가 될 것이다.

서양인과 동양인의 톱질과 비질의 방향, 숫자를 세는 방식, 날짜나 성명, 주소 표기 방법, 원근법과 풍경화의 대비, 눈빛의 특질 등에서 드러나는 발산과 수렴이란 음양 대립성은 문화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언어 현상에서도 관찰된다. 그것이 바로 다음 장에서 분석될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상이란 4가지로 분화하였기에 이원성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여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 서로 대립되는 음양의 이원성은 음 안의 태음, 태양의 (비교적 더) 음적인 것과 (비교적 더) 양적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 안의 태양, 소양도 양이면서도 비교적 더 양인 것과 비교적 덜 양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음양 대립의 2수 분화를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음양 대립이란 단지 100% 음과 100% 양의 대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음 안에 양이 있고 양 안에 음이 있는 원리라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상과 관련된 논의 역시 “‘발산과 수렴’이란 음양(陰陽)의 이원적 대립과 그 문화적 발현”을 다루는 본 II장 안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음 III장에서 다룰, 사상에 기반한 문화분석은 이회괘와 연관된 언어 분석과 연관되어 보다 상세하게 전개될 것이다.

IV. ‘발산과 수렴’의 사상적 대립과 그 언어, 문화적 발현

1. 평서문과 의문문의 뒤바뀜(=음양 대립적 사용)

“Or, rien de plus relatif qu’un Messie.”(Freud 2010:191)라는 불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한국어다운 표현이 되는지를 천착하다보면 곧바로 두 가지 언어체계의 발산과 수렴의 특질이 드러나게 된다. 이 불어문장의 등가번역에 해당하는 자연스러운 한국어표현으로

는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이 있을까?' 정도로 사료된다.⁹⁾ 그런데 출발어가 도착어로 의역되었을 때에는 'rien 없다'에서 '있는가'로 바뀐다. 즉 내용상으로는 정반대로(있다 -->없다¹⁰⁾) 되며 형식상으로는 평서

9) 원문에 대한 직역은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은 없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보다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표현은 아무래도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이 있을까?'일 것이다.

10) 본 논문에서는 발산과 수렴에 대한 음양 대립을 다루고 있지만 필자의 이전 논문인 『프랑스와 한국의 언어사용에서 드러나는 인지방식(긍정과 부정)과 그에 따른 문화 차이: 주역(周易)의 64괘를 비롯한 음양 대립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 연구』 제51집, 한국프랑스문화학회, 2021.에서는 긍정과 부정의 대립을 축으로 언어와 문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rien(없다)'의 부정적 단어가 '있는가'라는 긍정적 단어로 바뀌어 표현되는 '긍정과 부정의 뒤바뀐'에 대한 다양한 예시는 그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단, 그 논문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은 한 가지 예를 보자면 '코트를 벗지 마세요.'라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서양어로의 등가번역에 관한 것이다. 영어연수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www.realclass.co.kr 리얼 러닝 챌린지)의 광고에 나오는 예문인데 거기서 미국 원어민은 한국어 표현을 직역한 'Don't take off your coat.'라고 말하면 자연스럽지 않고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하며 그 경우엔 'Keep your coat on.'라고 말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광고에서는 '그러므로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부정이 긍정으로 변해야 되는지까지는 접근하지 않고 있다. 한국어로 부정으로 표현할 때 자연스러운 문장이 서양어로는 긍정 형으로 말해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현상은 불어에서도 마찬가지로서 'Gardez vos manteaux.'에 해당한다. 한국어로는 예컨대 "어머니께서 3월 말까지는 코트를 벗지 말라고 하셨어요."라는 말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서양 언어 식으로 '3월 말까지는 코트를 계속 입고 있으라고 하셨어요.'라고 말하면 '(상황이 어떻든지) 계속 입고 있으라.'는 (어떤 제한된 특수 상황에서 하는 말이 되거나) 어감 상 무언가가 절대적으로 강조되어 강압적으로까지 들린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불어로는 완전 반대이다. 한국어표현을 불어로 직역한 'N'enlève pas vos manteaux.'라는 부정 표현의 명령어에는 아예 어떤 금지사항을 전달하는 구문으로 되어 긍정 표현보다 훨씬 더 강압적 표현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어로는 '코트를 벗지 마세요.'가 계속 입고 있으라는 말보다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고 불어에서는 "N'enlève pas vos manteaux."로 벗지 말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강압적(plus appuyé comme ordre) 명령이 되어(pas très général comme utilisation, 일반적이지 않은 어떤 특수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표현) 'Gardez vos manteaux. (코트를 계속 입고 있으세요)'가 비교적 부드러운 충고 정도로(contexte général, 일반적 사용)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부정의 뒤바뀐 현상은 태극 원을 통과하는 한 선(즉 '같은 내용'이라는 하나의 태극을 시각화한 것)이 원 안의 음, 양의 부분을 거침에 따라 한 쪽은 밝고 다른 쪽은 어두운 쪽을 지나게 되는 것(즉 같은 내용을 말하기 위해 차용하는 표현양식이 한쪽은 부정 다른 쪽은 긍정의 형

문¹¹⁾에서 의문문으로 변하는 것이다. 같은 내용(태극)을 말하면서도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표현양식이 반대로 뒤바뀌는 다른 예문들은 후속 논문으로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므로 수렴과 발산을 축으로 언어와 문화를 분석하고 있는 본 논문은 <표 1>에서 보는 음양의 다른 여러 성질들을 축으로 하여 다른 구문과 문화현상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여러 논문들 중의 하나임을 밝힌다. 여기서는 간략히, 내용면에서 양의 세계에서는 부정(‘rien’)이었던 것이 음의 세계에서는 긍정(‘있음’)으로 바뀌고 있음을 지적하는 데에 그친다. 이제 형식면에서의 뒤바뀐(평서문과 의문문) 안에 자리한 사유패턴을 성찰해 보기로 하자.

즉 ‘rien’으로 표현되는 평서문이 왜 ‘있는가’라는 의문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 불어에서는 ‘없다’의 부정형으로 단정(affirmatif)하는 것을 한국어로는 ‘있는가’라는 긍정형으로 질문을 제기(interrogatif)하고 있는 것이다.

평서문이었던 출발어를 번역할 때 왜 의문문으로 바꾸어야 했는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원래 부정이었던 내용을 긍정으로 바꾸어 질문을 제기한 것은 어디까지나 발화자(sujet parlant)가 대화 상대(interlocuteur)인 청자의 자각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에서이다. 그럼으로써 ‘그런 일은 없다’ 정도의 청자의 피드백(반응)까지를 고려한 표현인 것이다.

상대방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반대를 짐짓 건드려 청자로 하여금 전달 내용을 더욱 더 확실히 긍정하게끔 유도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없지요? 그렇지요?’라면서 대화상대의 반응 (내지는 인식, 깨달음)을 다시 발화주체인 자신 안으로 받아들여 수용(=수렴)하는 상호 의사소통과정까지를 전제로 한 표현이 바로

태로 뒤바뀌어 나타남)으로 알 수 있다. 즉 그렇게 지구상의 음, 양의 지역에 따라 사유패턴이 달라지는 현상을 태극그림이 절묘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 11) [문법]평서문:(문장(文章)의 종류(種類)의 하나. 의문문(疑問文), 감탄문(感歎文), 명령문(命令文)에 대(對)하여, 사물(事物)을 객관적(客觀的)으로 서술(敘述)하는 것을 주(主)로 한다. (네이버 사전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C%9D%98%EB%AC%B8%EB%AC%B8&range=all>)

‘-보다 더 상대적인 것이 있을까?’라는 표현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런 한국어 표현에서는 상대(발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실을 자신(대화 상대) 안으로 단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대화상대가 어떤 진실을 보다 더 자발적으로 스스로 긍정하여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적인 심리적 전략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문문을 차용한 발화의 궁극적 목표이다. 이것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대화상대에게 들이댈 때 올 청자의 심리적 저항까지도 배려한, 고도의 심리적 전략에서 나온 의문형인 것이다.

여기서 청자가 어떤 진실을 받아들이는 수렴의 과정은 그 이후로 대화상대가 그렇게 진실을 깨달은 사실을 확인까지 하는 발화자의 수렴 과정까지 더해져 이중으로 수렴이 일어난다는 점 또한 흥미롭다.

반면 ‘Rien de plus relatif qu’un Messie.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은 없다.)’라는 프랑스어 표현에서 발화자는 대화상대가 자신이 말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건 말건 그저 자기 얘기를 언명할 뿐이다. 그럼으로써 ‘메시아라는 개념은 너무도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의견을 객관적으로 주장하고 단언¹²⁾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다. 거기에서 대화상대의 반발하고자 하는 심리적 저항이나 부담 정도는 안중에도 없다.¹³⁾ 대화 상대와 발화자 사이의 상호소통이나 상호 내적 수렴 과정은 별로 염두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저 사실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거나 그러한 사실을 자신의 의견으로 외부에 드러내는 것에 중점을 두는 표현방식인 것이다. 그리하여 문법적으로 의문문의 상대 개념인 평서문이라기보다는 단언문(斷言文, assertion¹⁴⁾, affirmation)이라는 개념이 더욱 정확하다고 사

12) 주저(躊躇)하지 아니하고 딱 잘라 말함. (네이버 국어사전 참조)

13) 그러나 서양에서는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정, 반, 합’의 토론문화로 승화시키고 있다. ‘정, 반, 합’이란 토론문화에 대한 더욱 상세한 논의는 다른 지면을 빌어 연구되어야 할 주제이다.

14) 단언문, 주장: 강한 선언. 신념이나 사실에 관해 강력하고 자신감 있고 긍정적으로 하는 진술로서 증거나 근거가 없으며 목적은 아이디어나 감정을 강력하게 표출하기 위함이다. (네이버 영어사전 <https://dict.naver.com/search.dict?dicQuery=>

료될 정도이다. 즉 의사소통이나 수렴보다는 자신 안의 의견을 발산¹⁵⁾ 하는 것에 무게중심을 둔 표현인 것이다. 그것은 과연 양(陽)의 사유방식인 ‘자신 안에서 밖으로의 표출’의 방향이며 음의 언어인 한국어식 표현인 ‘밖의 것을 자신 안으로 수렴’하는 음의 성향과 모든 면에서 대립되고 있다. 의문문으로 표현되는 태극이 평서문이라기보다는 아예 독단적 단정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표현으로 바뀌는 대립적 음양의 특질은 과연 주역의 진리를 대변하는 언어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역에서 ‘역(易)’은 ‘바뀌다’라는 뜻의 상형어인 만큼 주역의 모든 효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으로서, 우리의 언어, 문화 분석에서는 음양의 뒤바뀐 즉, 의문문과 평서문의 대립적 사용으로 증명되고 있다.

〈표 3〉

한국어 (음적인 사유방식):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이 있을까?’	프랑스어 (양적인 사유방식): “Rien de plus relatif qu’un Messie.”
긍정	부정
의문문	평서문 (부정문 또는 긍정문)
밖에서 자신 안으로의 수렴	자신 안에서 밖으로의 표출, 발산
의사소통을 염두에 둔 표현	객관적 사실을 단언하는 표현
개인 간의 조화와 화합이 순조로운 사회가 됨	이상적 대의가 사회적으로 관철되는 결과를 낳음

이와 비슷한 예로 한국어 표현의 ‘그런 법이 어딴니.’(누군가가 어떤 부당한 일을 행사하려 할 때 쓰는 말)를 들 수 있다. 이것을 불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지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의문문/평서문의 수렴과 발산의 원리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에 해당하는 등가번역의 가장 불어다

assertion&query=assertion&target=dic&ie=utf8&query_utf=&isOnlyViewEE=)

15) 이 부분에서 우리는 자기주장(self-assertion)의 경우까지도 생각하게 된다.

운 표현은 아무래도 'Vous n'en avez pas le droit.'('그러면 안된다' 혹은 '당신은 그럴 권리가 없다')가 될 것이다. 여기서도 긍정과 부정 사용의 뒤바뀔과 함께 의문문과 평서문의 대립적 사용이 바로 발화자와 대화상대 사이의 관계의 수렴/발산의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2. 발산과 수렴의 사상적 대립

그러나 위의 발산과 수렴이란 음양의 이원적 대립에 기초한 언어분석은 그 안에 이미 사상적 특질을 내포하고 있다. 의문문 표현의 이중 수렴의 의사소통 방식과 단언문 형태의 자기의견 발산의 발화행위에는 자아개념 외에도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나 외부세계를 향한 자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필자의 이전 논문¹⁶⁾에서 다다른 결론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과는 다른 범주의 언어표현을 분석하면서 소음의 과와 소양의 과가 각각 한국어와 불어의 어떤 구문과 관계되어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이희패로 되어 있는 소음과 소양의 과에서 상부 효는 자아 개념의 자리이고 하부 효는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가 맺는 관계의 자리(소음의 경우) 혹은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에 대해 취하는 태도의 자리라고 정의한 것이다.

16) 오정민(2021b), 「한국어와 불어 상호 번역과 관련된 사유패턴의 특성- 사상 이희패의 비교언어학」, 『인문과학』 123집, 5-39. 필자의 이전 논문에서 다른 종류의 문장을 분석하면서 다다른 결론을 본지의 논의에서 거론하는 이유는 소양과 소음의 과에 해당하는 언어표현의 예가 단지 이전의 논문에서 다른 분석대상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이기 위함이다. 그것은 본 논문에서처럼 언어와 문화 분석에 대한 후속편을 더해갈수록 음양대립의 여러 다양한 특질들을 더욱 상세히 거론하고 그와 직결된 예문들의 경우의 수를 통계적으로 확장시키는 일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러한 작업이 거듭될수록 점차 방대한 언어분석 자료로 축적되어 보다 확고한 비교언어학 주역, 비교문화학 주역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이후 후속편에서도 '수렴과 발산'이 아닌 다른 종류의 陰陽적 특질을 축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언어, 문화를 비교하여 분석할 예정이며 그러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이다.



<소음의 괘> <소양의 괘>

[그림 1]

바로 앞장에서의 분석에서 이미 드러나듯, 한국어의 의문형 표현에서는 불어의 단언문 형태에서처럼 자아개념이 그리 강화되어 있지 않다. 강화되어 있으면 상부 효 자리는 양(—)이 되고 자아개념이 거의 무화되어 있으면 상부 효 자리가 음(-)인 것이다. 과연, 한국어의 의문문에 해당하는 소음의 괘에서 상부 효는 음이며 불어의 평서문에 해당하는 소양의 괘에서 상부 효는 양으로 그려진다.

한편 불어의 평서문 형태에서는 한국어의 의문형 표현에서처럼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와 맺는 관계가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다. 발달되어 있으면¹⁷⁾ 하부 효 자리는 소음에서처럼 양(—)이 되고 평서문에서처럼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거의 무관심(Je m'en fous. {남이야 어찌 생각하든,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해.})에 가까운 정도면 소양에서처럼 하부 효 자리가 음(-)이 되는 것이다. 과연, 소양의 괘에서 하부 효는 음이며 소음의 괘에서 하부 효는 양으로 그려진다.

17) 이성환·김기현(2006:250-254)도 지적하듯 사상의학에서는 머리가 발달된 태음인, 가슴이 발달된 소양인, 배가 발달된 태음인, 엉덩이가 발달된 소음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어떤 부위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음과 대비된 양의 성격을 대변하는 것이다.

<표 4>

	소음의 궤 : 의문문 -- --	소양의 궤 : 평서문 -- --
상부 효 - '자아개념'의 자리	자아 개념이 무화되어 있음 (음 --): 자신의 의견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상대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반감 없이 스스로 수 긍하도록 하는 것이 발화행 위의 목표임 이중적 수렴이 일어남	자아 개념이 극도로 강화되 어 있음 (양 --): 자신의 의견을 내세움 자기 내부를 밖으로 발산함
하부 효 - '발화자가 외부세계의 관계'의 자리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 대나 외부 상황)가 맺는 관 계'는 매우 발달되어 있어 상 호통통이 관건이다 (양 --)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 대나 외부 상황)에 대해 취하 는 태도'는 거의 무화되어 있 다 (음 --)

자아 개념이 무화되어 있는지(상대의 깨달음이 발화의 목적인 소음의 언어) 혹은 자아개념이 극도로 발달하여 자신이 내세우는 바로 그대로 평서문으로 표현하는지(상대의 자각이나 반응까지는 고려하지 않는 소양의 언어)에 따라 상부 효가 결정되는 것(그에 따라 하부효도 각각 양, 음으로 뒤바뀌어 있는 것)은 바로 필자의 이전 논문(오정민2021 b)의 다른 언어표현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평서문/의문문의 경우에서도 틀림없이 확인되는 순간이다. 그것은 발화자가 청자와 맺는 관계의 종류나 성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럼으로써 발산과 수렴의 음양대립 역시 불어의 소양적 특색, 한국어의 소음적 특색¹⁸⁾을 확인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 모든 언어분석은 바로 <표 1>과 <표 2> 안에 담겨있는 화학 주역, 물리 주역, 컴퓨터 주역뿐만 아니라 비교언어학 주역도 가능

18) 그 외 불어의 태양적 특질, 한국어의 태음적 특질 분석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된 필자의 『인문과학』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3. 의문문/평서문의 다른 예들

“Or, rien de plus relatif qu’un Messie.” / ‘메시아보다 더 상대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의 예와 똑같은 사상적 분석이 적용될 수 있는 다른 예로 “아니 땀 굴뚝에 연기 나랴.” / “Il n’y a pas de fumée sans feu.¹⁹⁾”가 있다. 단 이 경우는 한 쪽의 출발어에 해당하는 등가번역표현을 찾는 과정도 필요가 없다. 두 문장 다 양 국가의 고유 속담이기 때문이다.

사족을 덧붙이자면 다음과 같다. 프랑스의 속담으로는 ‘불을 안 때면 연기가 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을 주장, 단언하는 평서문이므로 상부 효의 자아개념이 양이고 하부 효는 개인 간의 관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음의 少陽괘이다. 마찬가지로 뒤바뀐 이치로서, 한국의 속담에서 연기가 나는 경우를 일단 상정하여 긍정으로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의문형으로 물어본다. 그러면 그렇게 맞지 않는 상황(때지도 않았는데 연기가 나는 상황)을 청자는 ‘그런 이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 당연히 부정하게 된다. 이러한 청자의 심리적 반응과 마음의 움직임을 통해 상대가 더욱 확연히 ‘그럴 리 없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화법인 것이다. 그것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의사소통의 관계에 이중적 수렴현상이 발생하도록 하는 少陰적 언어행위이다. ‘불을 안 때면 연기가 날 수 없다’면서 처음부터 연기 나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자아개념 공고화의 少陽적 입장과 대비된다.

비슷한 범주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겠는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는가.” “눈물 없이 볼 수 있겠는가.” 등을 들 수 있다. 이

19) 이 문장은 수렴과 발산의 대립성 외에도 문장 순서가 완전 거꾸로 뒤바뀌어 있다. 문장 순서가 뒤바뀌는 것은 불어와 한국어에서 (주어를 빼고는) 거의 전체적으로 지배적인 음양대립현상이다.

모두 불어로 등가번역 문장을 찾는다면 의문형보다는 단언형이 보다 자연스럽고 불어에 보편적인 표현이 될 것이다. 즉, 모두 “Il n’y a pas de ~ sans~” 내지는 “Personne n’est à l’abri de~” 등으로 사실을 직접적,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양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그런 (가능하지 않은) 상정 자체를 처음부터 부정하여 ‘나’의 목소리로 내는 (=발산하는) 입장이다.

수렴과 발산의 음양 대립에 기인한 사유방식의 차이는 II장에서 이미 살펴본 문화현상뿐만 아니라 이렇듯 언어행위 안에도 짙게 반영되어 있다. 단, II장에서는 문화현상을 이원적 구분으로 살펴보았지만 다음 장에서는 이제 사상으로 더욱 분화된 이획괘의 소양, 소음적 언어분석을 기반으로 그러한 세계관이 빚어내는 전반적 문화현상을 살펴보도록 한다.

4. 발산과 수렴의 사상 대립적 문화

소통이나 청자의 입장까지를 고려한 이중적 수렴인 少陰적 언어행위를 기준으로 하다보면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少陽적인 언어표현이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 이유는 ‘의사소통을 염두에 둔 표현’이란 소음적 태도만을 한 가지 준거로 프랑스어 표현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게 少陽적인 언어행위가 우세한 사회에서는 단정적 표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소통은 그리 돈독하지 않아도(개인 간의 관계의 자리인 하부 효가 陰임) 사회정이나 대의, 중요한 기치 등이 그대로, 그것도 매우 강하게(예: 프랑스 대혁명 혹은 프랑스에서 일상 관련법이 거의 매해 바뀌는 현상) 현실로 관철되는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다. 반면 수렴 그것도 이중수렴의 少陰적 언어행위가 구사되는 사회에서는 어떤 대의를 강조하는 주체의 목소리를 외부로 발산하는 힘이 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자아개념의 자리인 상부 효가 陰임) 때로는 중요한 진리나 기치를 외치는 행위 자체가 평가 절하될

소지가 있다.

이렇듯 언어행위를 음양의 성질로 분석하다 보면 해당 언어를 구사하는 주체의 인성이나 사유방식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인 성향까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언어라는 인류의 정신적 재산이 갖는 위력이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호 중의 으뜸이 되는 언어가 차지하는 위치이다.

4-1. 소양(발산)과 소음(수렴)의 문화 차이

가. 톨레랑스

홍세화가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에서 키워드로 삼은 톨레랑스(tolérance)가 사상에 의한 언어분석 중 Ⅲ. 2.장에서 언급된 바 있는 ‘Je m’en fous.(남이야 어찌 생각하든,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 안 해.)’와 직접적 관련이 있다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수 있다. 남이 행사하는 ‘자유’에 간섭이나 비판을 가하지 않는 태도는 소음의 언어행위가 지배적인 한국의 문화와 사고를 기준으로 볼 때 매우 신사적인 문화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나 그 톨레랑스는 프랑스에서처럼 어디까지나 내가 원하는 바를 거침없이 행하는 외부 발산적 언어와 문화의 맥락 안에서 형성된 사유패턴이기에 그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니까 남도, 너도 그렇게 너의 식대로 하는 것도 당연하니 그것에 간섭하지 않고 놓아둔다.’는 입장이다. 그것은 ‘너의 상황이 어떻든 나는 내가 필요한 나의 것을 한다.’의 자세로까지 갈 수 있는 사유방식인 것임을 지적하는 논의는 그리 많지 않다. 톨레랑스는 과연 단언문 형태의 불어 언어행위와 같은 패턴인 소양적 사유방식에서 나온 문화이다. 그것은 한국어의 의문형 표현에서처럼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와 맺는 관계가 그리 발달되어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발화자가 외부세계대화상대나 외부 상황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정도로 된 것이다(하부 효 자리가 음 {-}).

하부 효 자리가 양(一)으로 되어있는 소음의 언어행위를 구사하는 한국인의 문화는 상대의 처지나 상황에 관심이 많고 그만큼 그것은 플레랑스와는 거리가 멀어질 위험이 있다. 사유방식이 외부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가치관이나 행동의 영향을 거두고 받아들이는 수렴으로 작동하기에 남으로부터 자신에게 오는 관심이나 심지어는 피해마저도 그리 개의치 않기까지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내가 남에게 본의 아니게 가하는 간섭이나 관심, 행동 등도 사회적으로는 비교적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남이 자기만의 식대로(발산의 방향으로)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리 환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남이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을 쉽사리 용납하지 못하는 프랑스의 문화와 반대이다.

그렇지만 모든 현상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공존하므로 플레랑스에 강하다면 개인 간의 관계는 그리 돈독하지 못하게 되고 반대로 개인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면 플레랑스에는 약간 취약해지는 면도 있는 것이다.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그와 함께 남의 영역에 (프랑스와 비교할 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로부터 선뜻 남의 일을 대신해 주는 감동적인 면과 항상 사회적 시선을 수렴적으로 의식해야 하는 두 가지 면이 결과로 생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랑스의 소양적 문화에서는 플레랑스만, 한국의 소음적 문화에서는 남에 대한 배려나 관심만 존재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음과 양은 서로 화합하고 조화될 때 창조적인 변화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남(양)녀(음) 화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탄생되거나 씨앗(양)이 땅(음)에 떨어져 싹을 틔우는 현상이 거론되기도 한다.²⁰⁾ 그러므로 (소)양의 언어가 구사되는 프랑스의 사유방식과 (소)음의 언어가 구사되는 한국의 사유방식이 서로 만나 화합되었을 때 더욱 태극에 가까운 인지세계가 창조될 수 있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러한 음양 화합으로 인한 인식상의 창조적 변화가 바로 본 논문의 성찰과

20) “짐승도 수컷이 암컷을 찾아가고 벌·나비가 꽃을 찾아가죠. 이렇게 양과 음은 서로 대립관계를 이룹니다.” (김석진 1999:67)

분석 작업이 지향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예컨대 흥세화가 책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 바처럼 한국에서는 퐁레랑스 쪽을 강조하고, 프랑스에서는 반대로 남에 대한 배려나 진정한 관심을 강조하면 보다 균형 잡힌 사회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²¹⁾ 이러한 우리의 논지는 이성환·김기현(2006:260)이 태음인에게 “건강하기 위해선 [반대 체질인] 태양인과 소양인의 마음가짐을 닮아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나. Je fais ce que je veux.(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니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표현이 시사하듯, 존칭(‘하세요’)과 비칭(‘니’)을 섞어 구사할 정도로 ‘내 마음대로 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국의 문화에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자아개념이 거의 무화에 가까운 소음의 문화와 언어권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면에 방점을 두는 것이 동양권의 전통적 철학이다. 그런데 그것은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양의 세계와 대립된, 반응적이고 수용적인 면에 더 가치를 부여하는 음의 세계²²⁾가 더욱 큰 원인일 것으로 사료된다.) 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리 좋게 보지 않는 때가 많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불어로 “Je fais ce que je veux.”라고 외치는 순간, 모두 다 순순히 물러나준다. 소음의 문화에서는 인간적 성숙도 상 최하로 여겨지는 말이 소양의 문화에서는 최고로 멋있는 발언이 되고 그러한 주장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것은 상부효가 양이라 자기주장의 ‘발산’이 주된 성향이고 외부세계는 거의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 음의 하부 효의 모습을 한 소양의 패가 디지털적으로

21) ‘조의금’(한국)의 예에서 보듯 개인 간의 돈독한 인간관계가 소양의 사회(프랑스)에서는 ‘각종 정부지원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는 어떤 사회정의나 대의(cause)를 외부로 향해 결연히 외치는 소양 패의 상부 효가 한몫 하고 있다고 필자는 본다.

22) 이러한 음양의 성질에 대해서는 <표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보여주는 문화현상이다. 이 역시 자아개념이 강한지 무화되었는지의 상부 효의 음양 여부와 발화자가 외부세계와 맺는 관계가 발달되었는지의 하부 효의 음양 여부에 따라 극도로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문화현상인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한다.’는 표현이 한국에서는 그리 바람직한 소리로 들리지 않을 때가 많은 이유는 소음의 궤에서 상부 효가 음으로 되어 있어 자기 발산보다는 자신을 거의 내세우지 않는(자기 무화) 성향의 결과이다. 반면 하부 효는 양으로 되어있어 발화자는 외부세계를 거의 수렴할 정도로 매우 중시한다. 상대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음의 하부 효의 모습을 한 소양의 궤와 완전 반대되는 형상이다.

우리의 이 예문을 퐁레랑스와 연계하여 성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소음의 성향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내가 내 맘대로 안/못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는 타인을 그리 흔쾌히 용납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한국인에게 굳이 퐁레랑스가 필요하다기보다는, 남을 배려하여 자기 멋대로 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퐁레랑스의 면을 그리 크게 강조하지 않게 될 뿐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니까 너도 네 마음대로 하라는 입장이 바로 퐁레랑스 안에 자리한 근본 자세이기 때문이다. 거꾸로 말하여 퐁레랑스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일도 자기 좋은 대로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된다.

다. 공공장소에서 자아 욕구(양의 상부 효=少陽의 문화)의 발산과 남이 듣는 대화(양의 하부 효=少陰의 문화)

상대를 그리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소양의 문화에서는 공공장소(길거리나 공항 등)에서 커플의 포옹이나 키스²³⁾를 자주 목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는 진지한 회의석상에서 앉아있을 때 코를 푸는

23) 「7 choses normales en France mais impossible en Corée」(프랑스에서는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7 가지)로 유튜버 Laurent Caccia는 bises(볼키스)(https://www.youtube.com/watch?v=GX_VQ7n-qFo)를 들고 있다.

행위²⁴⁾도 그리 충격적인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한국의 문화에서는 그리 자연스럽다거나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다.

한국의 기준에서 서양의 문화가 억압이 없고 ‘자유로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막상 프랑스에서 생활하다보면 자유롭기는 한데 뭔가가 불편한 자유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것은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화적 현상은 개인 간의 관계가 그리 돈독하거나 밀접하지 않음을 보이는 쾌(소양 쾌에서는 하부 효가陰임)가 잘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므로 무제한의 자유는 아니다. 소양 쾌에서 상부 효가 양(=자아개념이 강함)인 만큼, 프랑스에서 각 개인은 각자의 ‘나의 영역’을 확보하고 그 영역이 침범되면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대도시로 갈수록 심하다. 내가 무엇이든 하거나 입을 수 있는 자유와 동시에 남에 대한 관심은 철저하리만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남의 영역에 대한 내 관심이나 행동을 어느 선에서는 멈추는 모습을(예컨대, “En tout cas, tu fais ce qui te convient.”)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강화된 자아개념은 개인의 독창적 창조 면에서 사회 전체적으로 매우 훌륭히 발달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남의 영역에 비교적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는 (한국의) 소음의 문화에서 자랐다면 개인 간의 단절의 모습은 더욱 더 불행해 보이지만 정작 프랑스인들은 그런 개인적 관계를 당연시할 뿐이고 그것은 행복이나 불행과는 무관한 분야다. 나와 남을 예리하게 구분 안하는 지혜²⁵⁾로부터 오는 정겨움, 편안함은 바로 자기무화와 발달된 개인관계의 소음의 쾌가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런 행복 속에는 개개인의 독창성보다

24) ‘se moucher en public(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코풀기)’ 역시 「프랑스에서는 보통이지만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7 가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위의 인터넷 주소 참조)

25)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보다는 개인 주택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한다. 주택보다는 집단적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과의 대립된 가치관 역시 소양과 소음의 쾌가 잘 보여주고 있다.

는 사회 집단적 획일성(의사소통의 면이든 물질적 형태에 관련된 유행 이든)이 자리 잡을 위험도 있다. 외부환경을 수렴하기에, 신경 써야 되는 '타인의 시선'(이 역시 외부세계를 자신 안에 받아들이고 수렴하는 성향임)이라는 것도 잘 따지고 보면 그렇다고 여기는 각 개인의 서로 다른 생각일 뿐이다. 또한 아무리 서양이라도 사회적으로 '정해진 틀'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유방식 역시 수렴의 성향(=음의 사유 패턴)에 해당한다. 이런 것을 프랑스의 '불편한 자유'에 대비된 한국의 '편한 억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그것은 외부세계는 그냥 놔두고 자신을 무화시켜 수렴하는 자세인데 소양의 기질이 많은²⁶⁾ 프랑스 문화에서는 자신의 내부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를 외부로 발산하여 끊임없이 외부세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내용을 창조²⁷⁾하고 정해진 틀을 깨거나 거부하는 일(예컨대 프랑스에서 상반된 문학 사조의 연쇄적 생멸, 프랑스 대혁명, 1968년 혁명 등)로 역사가 점철되어 있다. 그러한 끊임없는 거부나 혁명 자체(동적이다²⁸⁾)가 서양 특히 프랑스 사회에 특유한 문화, 사고방식이다. '분위기'에 맞추어야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모두 한다."라거나 외부에 어떤 정해진 틀이 있다²⁹⁾는 말은 수렴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의 세계관일진데 소양적 기질의 서양인들에게는 설득력이 별로 없을 것이다. 프랑스인들을 비롯한 서양인들은 대체적으로 '내가 어떤 분위기를 만든다.'는 발산의 표현을 많이 쓴다. 이 점만 보아도 각자의 세계관이 얼마나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인지 알 수 있다.

26) 이성환·김기현(2006:269)은 “소양인은 코끝이 뾰족하다”고 특징짓고 있다. 서양인들의 코와 직결되는 지적이다.

27) 여기서도 '창조'하는 양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참조)

28) <표 1> 참조

29) 이것은 정적이다. 이렇게 동적/정적인 양음의 특질은 <표 1>에서도 동물은 양에 해당하고 식물은 음에 해당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그러니 <표 1>에서 나열되고 있는 각각의 음양 특성은 이렇듯 서로 이어져 있는 같은 계통의 성질임에 우리의 언어, 문화 분석을 통하여서도 밝혀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 발산/수렴의 특성이 밖과 안, 추력/인력과 같은 의미인 것과 같다. 그것은 발산하는 여름, 안으로 단단하게 수렴하는 겨울과도 같은 특성이다.

불편한 자유의 또 한 가지 예로 (예컨대 병원이나 시청의 조용한 대기실 등) 다른 사람들이 듣는 데서의 커플끼리의 일상적 대화조차 프랑스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금기시되어 있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남이 하는 말을 엿듣는 것도, 남이 들을 정도로 커플끼리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 내용이 아무리 일상적인 농담, 하소연, 토로, 사소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별로 안 좋게 여기거나 최소한으로 축소하기 때문이다. 매우 개인적인 포옹이나 키스, 코플기는 자연스러운 것(naturel)이라며 버젓이 공공장소에서 행하면서 남이 들을 만한 장소에서의 하찮은 일상적 대화는 금기시하는 것은 한국의 기준에서는 의아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는 소양의 껍데가 잘 보여주고 있다. 양의 상부효인 만큼, 자아의 필요나 욕망을 외부로 발산하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므로 한다') 반면 예컨대 커플 사이의 대화를 타인이 듣도록 하는 것은 아무래도 타인과의 소통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이 (아무리 사소한 일상적 농담이라도) 타인에게 들리도록 말하는 것은 예의 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것('Si on se mettait à parler tous ensemble dans un lieu restreint, ça ne serait pas très poli.')이다. 그것은 하부 효가 음으로 되어 있어, 개인 간의 소통이나 밀접한 관계가 발달되어 있지 않거나 심지어는 부정적('Parce que ça ne regarde personne.' 'Ils n'ont pas besoin de savoir de la vie privée des autres.')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³⁰⁾

하부 효가 양이고 상부 효가 음으로 되어 있는 소음의 문화에서는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다. 즉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포옹, 키스, 코플기를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기는 반면(내가 원하는 나만의 욕구나 필요를 내세우는 일은 그다지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아 자아의 욕망은 거의 무화된 것 같은 문화) 예컨대 병원 대기실에서의 일상적 대화는 남

30) 더욱이 서양 심리학에서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가장 최선의 해결책은 '거리두기'(자신의 입장을 타인에게 대입하지 않는 자세)"라는 논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는 지면 제한상 더 이상 전개하지 않기로 한다.

이 들어도 그리 개의치 않는(개인 간의 관계나 소통이 강조되거나 보다 원활하고 자연스러움) 것이다. 근래는 스마트폰으로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한국의 전철 안에서 한 사람이 읽는 신문을 옆 사람이 무심코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전철에서는 넓적한 가방이 조금이라도 옆 사람 자리로 넘어가는 일을 매우 예의 없는 일로 안 좋게 본다. 조금이라도 옷깃을 스치면 금세 “Pardon.(미안합니다)”를 연발하는 이유 역시 소양의 하부 궤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대적 현상을 ‘프랑스에서는 억압이 없고 자유롭지만 편하지는 않고, 한국에서는 편하지만 자유롭지는 않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대립 현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연원을 음양 대립에서 나아가 더욱 세분화된 이효 궤에서 찾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양과 소음의 상부 효, 하부 효 분석의 의의이다.

또 한 가지의 예로, 프랑스 뉴스에서는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을 매우 활발히 표명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 활발한 차원(하부 효)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외부에 내세우는(즉 소양의 궤에서 자아개념의 자리인 상부 효가 양인) 지극히 발산의 차원이다. 반면 한국에서 데모나 집회 등으로 표현되는 자아 요구의 행위가 (더욱이 과거 역사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그리 긍정적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았)다. 그러한 보수적 시각의 이유는 바로 소음궤의 상부 효가 음인 것을 보아도 들어맞는다.

여기서 우리는 이원적으로 단순히 볼 때는 모순으로 여겨지는 사회 현상이, 사상의 이획궤에 의하면 상부 효의 음양 여부에서 그 모순으로 보이던 것이 풀리는 점을 볼 수 있다. 즉 전철이나 대기실에서는 서로 매우 조심스러워할 정도로 자기 얘기를 크게 하지 않는 프랑스인들(타인이나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거나 아예 등을 돌리기까지 하는 태도)이 마이크를 들이 댄 토론 방송이나 데모(grève, manifestation), 상담실에서는 대거 자기표현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 아니라 바로 이렇듯 하부효의 음, 상부 효의 양으로 설명되는 것이다.

프랑스인이라면 상반된 한국인의 모습에 처음엔 의문스러워할 수도 있겠다. 즉, 사석이나 모임에서는 매우 거침없이 자기표현을 하는(하부효가 양-지인끼리의 교류를 좋아함) 이들이 TV나 방송에서는 그리 떠들썩하기까지는 않거나 파업, 데모 등(이것은 자기표현을 매우 강하게 외부로 향하여 들어대는 ‘발산’의 행위이다)을 그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는 소음의 궤가 절묘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듯 플레랑스를 비롯한 발산/수렴의 다양한 문화현상을 일면적으로 보지 않고 복합논리인 음양 대립(자유롭지만 불편함 즉 자유와 불편의 공존/ 편하지만 자유롭지는 않음 즉 편함과 억압의 공존) 나아가 사상의 이회궤(자아개념의 음양 여부+개인과 사회관계의 음양 여부)로 풀이할 때 그 만물의 작용원리를 동전의 이면까지 같이 보는 성찰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V. 맺음말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복희씨가 효와 궤 특히 양괘(☰)와 음괘(☷)라는 2수분화의 디지털적 부호로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원리를 전했다면 그 궤를 지구상의 현상 중의 하나인 언어 안에 자리한 음양의 특성을 우리의 연구에서처럼 논의로 풀어내는 일은 아날로그적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처음에는 음양에 대한 필자의 다년간에 걸친 탐구와 그에 따른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그 중 특히 언어를 재료로 취하여 시작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고회민도 언급하고 있는 직각체오(直覺體悟) (고회민 1996:118) 즉 음양법칙에 대한 직관도 한몫 했을 것 같다. 그런데 불어와 한국어 번역상의 등가표현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문법이나 문장구문의 언어학으로 분석하다보니 양 언어 안에 극명하고 질서정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예상 이외로 더욱 엄정한 체계적 음양대립성이 숨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이에, 음양 이해를 위해서는 직관적 접근과 관찰, 사색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논리적 접근에 따른 구명 역시 거대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는 필요불가결한 방법임이 드러난다. 그것은 직관적 깨달음과 상보적으로 사용되는 이성적 사고의 방법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논증 시 사용한 이 두 가지 노선은 고회민도 지적하고 있듯 과연 두 가지 경로를 통한 우주진리 탐색(고회민 1996:118-119)에 속한다.

■ 참고문헌

- 고영진(2009), 「음양오행설의 언어이론 가능성 모색」, 『한민족문화연구』, 29, 한민족문화연구, 33-60.
- 고희민(1996), 『주역철학의 이해』, 정병석(鄭炳碩) 옮김, 문예출판사.
- 김경희(2000), 「한국소설 번역의 문제점 고찰 : 불어 번역을 중심으로」, 『불어불문학연구』, 41-1, 한국불어불문학회, 27~58.
- 김경희(2002), 「문화 차이의 번역에 관한 고찰」, 『불어불문학연구』, 50, 한국불어불문학회, 625-652.
- (大山) 김석진(2017), 『대산 주역강의』 上經, 한길사.
- 김성현(2016), 「엘리엇의 『네 사중주』에 나타난 『주역』의 이미지 분석」, 『T.S. 엘리엇 연구』 26-2, 한국 T.S. 엘리엇 학회, 1-24.
- 김용복(2009), 「한국무용 동작구조의 시·공간적 의미 -역학적(易學的) 사유(思惟)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 춤과 과학기술』 5-2, 한양대학교 우리 춤 연구소, 75-101.
- 김인환(2010), 『주역(周易)』,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김종미(2009), 「문화간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본 중국어 어휘의 정 반대립구조」,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7-2,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189-207.
- 김창식(2016), 『주역철학』, 청어.
- 석준(2008), 「문학과 사상의학」, 『프랑스학연구』 46, 프랑스학회, 209-229.
- 심경호(1994), 『주역철학사』, 예문서원.
- 오정민(2021 a), 「프랑스와 한국의 언어사용에서 드러나는 인지방식(궁정과 부정)과 그에 따른 문화 차이: 주역(周易)의 64괘를 비롯한 음양 대립을 중심으로」, 『프랑스 문화 연구』 51, 한국프랑스문화학회, 311-333.
- 오정민(2021 b), 「한국어와 불어 상호 번역과 관계된 사유패턴의 특성-사상(사상) 이획괘의 비교언어학」, 『인문과학』 123, 인문학연구

원, 5-39.

- 이성환·김기현(2006), 『주역의 과학과 도』, 정신세계사.
- 장은석(2017), 「동서양의 상징조형에 관한 비교 연구 -음양오행과 기(氣)사상을 중심으로-」, 『조형미디어학』 20-1, 한국일러스트아트학회, 198-208.
- 전창선·어윤형(2003), 『음양이 뭐지?』, 세기.
- 정석현(2016), 「『주역』의 기본공리로서 ‘도(道)’의 개념과 태극·양의·사상·팔괘」, 『哲學論叢』 86-4, 새한철학회, 399-427.
- 조정은(2020), 「『악기』의 예악론과 음양사상」, 『유교사상문화연구』 82, 한국유교학회, 177-204.
- 한학선(2017), 「에이즈 시에 나타난 자아추구의 여정: 음양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에이즈 저널』 54, 한국에이즈학회, 295-323.
- 홍세화(2019), 『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미디어창비.
- 황제 지음, 이창일 옮김(2004), 『황제내경(黃帝內經): 잃어버린 삶의 기술』, 서울, 책세상.
- Freud, Sigmund(2010), *Cinq leçon sur la psychanalyse*, Paris: Payot.
<https://hanja.dict.naver.com/#/search?query=%EC%9D%98%EB%AC%B8%EB%AC%B8&range=all> (검색일: 2022.1.9.)
- <https://realclass.co.kr/new/promotion/package/live> (검색일: 2022.1.7.)
- https://www.youtube.com/watch?v=GX_VQ7n-qFo (검색일: 2022.1.5.)

❖ ABSTRACT

Emissive and receptive properties manifested
in the languages and cultures - in the case of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Oh, Jungmin
Chugye University for the Arts

The opposition in the way of thinking especially the opposition of emissivity and receptiveness revealed by analyzing the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in our study could be visualized by Taegeuk. The dualism of Yin-Yang can be subdivided into Sixiàng to better locat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part of our universe, which leads to two parts of trigrams, specifically the bigrams of Sixiàng. Our previous study which showed that the upper part of bigrams indicates the notion of ego while the lower part the relationships between an enunciator and its interlocutor was proved to be also valid both in the cultural phenomenon such as the way of painting, counting, and scribing dates, addresses, names, et cetera and in the linguistic phenomenon such as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in Korean and French. These two regions on our planet correspond to Yin and Yang. Our search specifically revealed that the properties of Soeum and Soyang are inherent in the concrete examples of Korean and French cultures and languages.

Key Words : Emissivity and Receptiveness, Sixiang, French an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Declarative and Interrogative
Sentences, Tolerance

■ 논문접수일 : 2022. 01. 11

■ 심사완료일 : 2022. 02. 02

■ 게재확정일 : 2022. 02. 03